

'타이거즈 수호신' 정해영, 구원왕 '예약'

오승환 제치고 구원 부문 단독 선두...3위와 22개 차 압도

'전설' 선동열·임창용 이어 3번째...26년 만에 대기록 눈앞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클로저' 정해영이 개인 첫 '구원왕' 타이틀에도 도전한다. 정해영은 지난 1일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9회말 등판해 6-5 팀 승리를 지키며 시즌 28세이브(2승3패)를 올렸다. 전날에 이어 2경기 연속 세이브를 올린 정해영은 이 부문 공동 1위 오승환(삼성)을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다. 또, 공동 3위인 유영찬(LG), 박영현(K)의 22개와도 격차를 더욱 벌렸다. 시즌이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개인 첫 구원왕 타이틀 획득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올 시즌 45경기에 출장해 평균자책점 2.66을 기록한 정해영은 KIA 뒷문을 든든히 지키며, 정규리그 1위 질주에 큰 공헌을 했다. 지난 4월 24일에는 개인 통산 100세이브를 거뒀다. 통산 100세이브도 22세 8개월 1일에 채워 2000년 임창용(당시 삼성 라이온즈)의 23세 10개월 10일을 1년 이상 앞당긴 최연소 기록을 작성했다. 또 통산 누적 세이브 118개를 기록 중인 정해영은 27개만 더 추가하면 KBO리그 통산 17번째 120세이브를 달성한다. 전반기 막바지에는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

단에 오르며 6주 가량 전열에서 이탈했지만, 지난달 6일 K전에서 무실점 투구로 특급 마무리로의 귀환을 알렸다. 2020년 1차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정해영은 첫해 평균자책점 3.29, 5승4패1세이브 1홀드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2021년부터 마무리로 뛰며 34세이브(3위)를 챙겼고, 그해 KBO리그 역대 최연소 30세이브(20세 1개월 27일) 기록도 썼다. 2022년에는 32세이브(3위), 지난해에는 23세이브(7위)를 올리며 꾸준한 활약을 펼쳤지만, 구원왕 타이틀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정해영이 올 시즌 구원왕을 차지한다면 타이거즈로는 1998년 임창용(해태, 34세이브) 이후 26년 만이다. 특히 KIA 소속으로는 처음이다. 해태 시절 구원왕은 선동열과 임창용이 오른 바 있지만 이후 구원왕은 나오지 않았다. KBO리그는 1982년부터 2003년까지는 구원승과 세이브를 합산한 '세이브 포인트'로 구원왕을 정했다. 1993년과 1995년 선동열, 1998년 임창용은

세이브와 세이브포인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타이거즈에서는 구원왕이 배출되지 못했다. 2000년 이후 세이브왕이 배출되지 않은 팀은 NC와 kt, KIA 3팀 뿐이다. '21세기 첫 타이거즈 세이브왕'을 노리는 정해영의 손 끝에 팬들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주홍철 기자



'파리 올림픽 복싱 동메달' 임애지 7일 키움戰...KIA 승리기원 시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키움과의 홈경기에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임애지를 초청해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화순 출신 복싱 선수 임애지(화순군청·사진)는 지난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54kg급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대한민국 여자 복싱 최초 메달이자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만의 복싱 메달이다. 임애지는 "리그 1위 팀 KIA 타이거



즈의 시구를 맡게 돼 영광"이라며 "파리에서 가져온 승리의 기운을 선수들에게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힘찬 시구를 하겠다. 이날 경기에서 꼭 이겨서 승리요정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홍철 기자

8월 '3승'·평균자책점 0.70...'안벽태'

네일, 8월 월간 MVP 후보 선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발투수 '에이스' 네일(사진)이 KBO 8월 월간 MVP 후보에 선정됐다.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8월 월간 MVP 후보로 총 8명의 선수를 확정했다. 투수 중에서는 KIA의 제임스 네일을 비롯해 두산 김택연, 삼성 원태인, 한화 박상원이 후보로 올랐고, 야수 중에서는 LG 오스틴, KT 김민혁, 롯데 손호영, 삼성 구자욱이 후보로 선정돼 8월 MVP 수상을 노린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 마운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네일의 빼어난 활약은 8월에도 이어졌다. 선발 등판한 5경기에서 3승을 거뒀고, 지난달 13일 고척 키움전부터 24일 창원 NC전까지 16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았다. 8월 평균자책점 0.70을 기록하며 해당 부문 1위에 오른 네일은 부상을 당했던 지난달 24일 경기에서도 5이닝을 무실점으로 투구하며 에이스다운 활약을 펼쳤다.



네일은 6회말 선두타자 맷 데이비스이 친 타구에 얼굴을 맞고 부상을 당했다. 턱관절이 부러진 네일은 다음날 수술을 받고 현재는 입원 치료 중이다. 네일은 자신의 SNS에 엄지척 사진을 게재하며,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한편, 매월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시상하는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팬 투표는 3일 10시부터 오는 8일 23시 59분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참여 가능하다. /주홍철 기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네일은 자신의 SNS에 엄지척 사진을 게재하며,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한편, 매월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시상하는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팬 투표는 3일 10시부터 오는 8일 23시 59분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참여 가능하다. /주홍철 기자



3일 열린 철원컵전국유도대회에서 출전 선수 전원 메달을 획득한 광주교통공사 선수단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광주교통공사 황수련·김혜미 '금메달'

2024 철원컵유도, '부상 투혼' 이주연 '銀'·조윤의 '銅'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황수련과 김혜미가 메달을 평정했다. 황수련과 김혜미는 3일 강원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철원컵전국유도대회 여자일반부 -52kg급과 -70kg급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황수련은 8강전에서 오연주(성동구청)를 상대로 허벅다리후리기되치기절반과 누르기절반으로 한판승, 준결승전에서 제정주(철원군청)에게 소매업어치기절반과 빗당겨치기절반으로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장예진(포항시청)에게 안팎축걸기절반과 누르기로 한판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김혜미도 8강전에서 박다운(성동구청)에게 기관승, 준결승전에서 김도연(동해시청)에게 반칙승(지도3개)을 거두며 결승에 안착, 유예진(고창군청)에게 허벅다리후리기 한판승을 거

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3kg급 결승에서 무릎부상으로 아쉽게 기권한 이주연은 은메달, -52kg급 준결승서 부상기권한 조윤의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출전 선수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자대학부에서는 배경은(조선대)이 -70kg급 결승에서 유단비(선문대)에 허벅다리후리기 한판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전지연(조선대)은 -48kg급 결승에서 김민주(용인대)에게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신대철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감독은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과 투혼으로 훈련에 매진한 결과 출전 선수 전원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기세를 이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봄배구 향한 뜨거운 팬心' 시페퍼스, 멤버십 회원 초청 오픈트레이닝 성료



페퍼축은행 시페퍼스가 지난달 30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팬 120여명을 초청해 오픈트레이닝 행사를 진행했다. 시페퍼스는 다가오는 2024-2025 도드람 V리그 개막에 앞서 팬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오픈트레이닝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비시즌은 외국인 선수가 모두 교체되고 선수단 구성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어느 때보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시페퍼스는 위밍업과 맨투맨패스, 포지션 수비연결, 개인공격, 6인 시스템, 서브&리시브 등 다양한 훈련 과정을 공개했으며 훈련이 끝난 뒤에는 한 시간 동안 선수단과 팬들이 자유롭게 포토타임을 가졌다. 김동연 시페퍼스 단장은 "다가올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과 관련해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팬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시페퍼스를 사랑해주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페퍼스는 오는 29일 개막하는 '2024 통영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다. /박희중 기자

'통한의 한 발'...날아간 메달

양궁 박흥조·김옥금, 동메달 결정전 '1점 한 발' 싹 4위

박흥조(41)와 김옥금(64)이 2024 파리 패럴림픽 양궁 혼성단체전(스포츠등급 W1)에서 한 발의 실수로 동메달을 놓쳤다. 두 선수는 패배의 충격이 가지지 않은 듯 경기가 끝난 뒤 공동취재구역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흥조-김옥금 조는 2일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에서 열린 대회 파울로 토논-다일라 다메노(이탈리아) 조와 양궁 W1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132-134로 졌다. 4강전에서 중국 조에 139-145로 패했던 박흥조-김옥금 조는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순조롭게 출발했다. 1엔드에서 '엑스텐'(정중앙)을 포함해 35점을 획득했고, 2엔드에서

서도 10점을 포함해 36점을 얻었다. 2엔드가 끝났을 때 박흥조-김옥금 조는 71-63으로 이탈리아에 8점 앞섰다. 하지만 3엔드부터 박흥조-김옥금 조는 흔들렸다. 이탈리아 조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을 9점과 10점에 꽂아 넣은 반면, 박흥조와 김옥금은 모두 8점을 쏘았다.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서를 이탈리아가 먼저 쏘는데, 두 선수 모두 10점을 쏘았다. 관중석에 자리한 이탈리아 팬들이 자국 국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 순간 한국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다. 김옥금이 세 번째 화살을 9점에 먼저 넣었지만, 집중력이 흔들린 박흥조가 1점에 그쳤다. 화살위를 당기는 순간 박흥조는



김옥금(왼쪽)이 지난 2일 열린 양궁 혼성 단체전(스포츠등급 W1) 동메달 결정전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의 실수를 예감한 듯 눈을 질끈 감고 탄식을 쏟아냈다. 8점 차이로 앞섰던 박흥조-김옥금 조는 오히려 이탈리아에 5점 뒤진 채 3엔드(97-102)를 마쳤다. 4엔드에서는 이탈리아보다 3점 앞선 35점을 획득했지만, 결국 승부를 되돌리지 못하고 이탈리아에 동메달을 내줬다. 3엔드에서의 '1점'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옥금은 개인전에 이어 혼성 단체전에서도 4위에 자리하며 파리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 전부터 파리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언급했던 김옥금의 '라스트 댄스'는 무관으로 끝났다. /연합뉴스